

인권 친화적 교과서,
왜 필요한가요?

‘양성평등’,
법률용어에는 인권
문제가 없을까요?

‘소방관 아저씨’,
‘식당 아줌마’라는 표현,
괜찮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하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라는 표현에도
인권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고려하기 힘들니까 그냥
빼고 싶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하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하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55)
디자인 노사이드스튜디오
인쇄 디자인모장 (02-2278-1990)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를 내는 이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2023년부터 교과별 교과서가 개발되고,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된 수업 자료이자 기준점이므로 교과서의 서술이나 묘사, 혹은 삽화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즉, '인권'이 교과서 집필의 기준과 방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및 검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길잡이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인권의 가치와 관점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원칙과 관점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 길잡이가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뿐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가 교수·학습 자료를 선택하거나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부터 인권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과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인권전문가에게 인권 관점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 길잡이가 더 나은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고시 제2022-33호, 2022. 12. 22., 전부개정][시행 2024. 3. 1.]

**“어린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존중과 평등, 정의라는 인권의 기본 가치를 배우고
체험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의 모든 교과서, 교육과정, 교육정책,
교수법,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인권의 기본 가치가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 전(前) 유엔 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인권 친화적 교과서, 왜 필요한가요?

다음 수업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래 그림은 실제 교과서 삽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교시 사회

전쟁과 가난, 질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

아프리카는 왜 가난할까요?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나라끼리, 또는 나라 안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식민지 시대에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나누어 놓아서이기도 하고 정치와 종교, 민족의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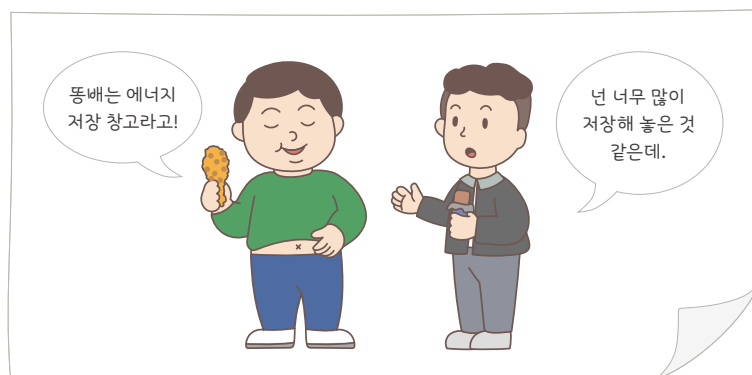
⋮

계속되는 싸움으로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또 가난 때문에 다시 싸움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리고 기후가 바뀌어 넓은 땅이 사막으로 변해 가는 것도 이곳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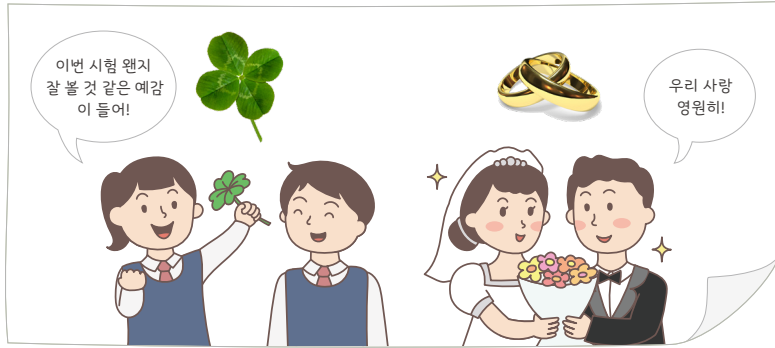
- 교사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느낌이나 생각,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다 좋습니다.
- 학생들 더러워요! 가난해요! 얼굴에 파리 붙어있고...
- 교사 그렇죠. 교과서의 사진에서는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 학생들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2교시 과학



- 교사 글을 잘 읽어보셨나요?
- 학생1 ○○아, 너 배도 에너지 저장창고냐?
- 다른 학생들 킥킥킥 웃는다.

3교시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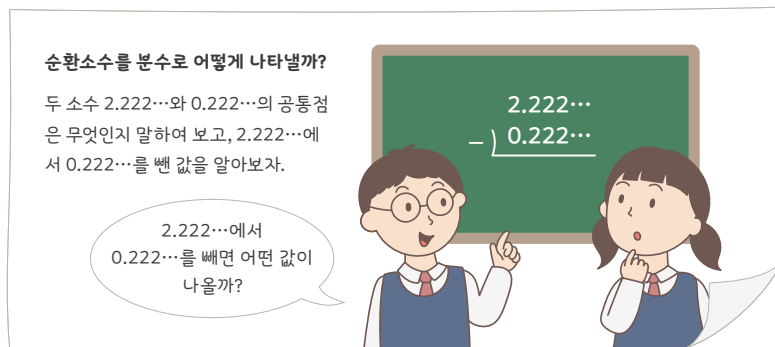
교사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남녀의 결혼반지는 사랑을 상징하는 매개체입니다.
 학생 선생님 남녀가 사랑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요?

4교시 영어



교사 오늘은 '행복'을 주제로 시를 쓰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학생 저 흑인 진짜 웃기게 생겼다
 다른 학생들 키득키득 웃는다.

5교시 수학



교사 오늘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예요.
 여학생1 선생님, 왜 항상 남학생만 똑똑하게 나와요?
 여학생2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멀리뛰기를 훨씬 잘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우리 반에서는 내가 멀리뛰기 제일 잘하는데...

교사의 안내와 학생의 반응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 단위,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교과서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지향점과는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는 문제가 되는 수업 상황이지만, 실제 교실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큼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는 교사의 안내와 학생의 반응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생에게 배부된 교재로, 가장 접근성이 편리한 수업 매체입니다. 특히 중등교육에서 교과서는 시험이나 평가의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교과서를 구성하는 형식과 내용은 다른 교육 매체보다 더 철저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인권을 수호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위해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한 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한 기초적인 발판으로서 인권교육을 가장 보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갖는 의미와 앞서 살펴본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의 위상을 연결 지어본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 매체의 핵심이 되는 교과서는 충분히 인권 친화적이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즉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이야말로 ‘모두의 인권’을 수호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일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를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매개체

교과서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를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이 안전하다면, 교실에서도 안전한 수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과서가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면, 더 많은 교육 주체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 친화적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내용으로 다루지 않을 때도 교과서는 인권 관점과 가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즉 교과서는 ‘인권에 관한’ 지식적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인권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인권을 통한’ 참여와 실천의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

서약서 쓰기 학습 활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이나 서약을 강요하는 활동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기에 인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간혹 교과서에는 사회 문제를 다루며 '서약서 쓰기' 학습 활동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약서 쓰기'와 같은 활동은 자칫 사회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사회 문제의 해결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 짓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문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사회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 영역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공동체적 문제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와 맥락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어 진행하는 '서약서 쓰기' 활동은 인권 친화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에게 개인적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친화적 교과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사회제도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서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사회구조가 개인의 인권 상황이나 문제,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 교과서는 사회 문제를 다룰 때, 학습자가 이에 관한 자신의 마음을 주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자기 삶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언행 또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이 사회 문제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 이렇게 해봐요!

- 교과서에서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요.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아야 해요.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 '책임 있는 주체에게 요구할 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제안해요.
-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심화 활동을 구성해볼 수 있어요.

활동 예시: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활동

1.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나'의 감정을 생각해봐요.
2. '사적 역할 카드' 중 한 장을 뽑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적 참사를 이해하고 공감해봐요.
3. '공적 역할 카드' 중 한 장을 뽑아 그 사람에게 제도 개선이나 보완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봐요.
4. '공적 역할 카드'에서 뽑은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봐요.

가. 사적 역할 카드(5종)

나는 희생자의 가족 입니다.	나는 희생자의 친구 입니다.	나는 현장 목격자 입니다.	나는 지역 상인 입니다.	나는 지역 거주민 입니다.
내 가족이 사회적 참사로 인해 죽거나 다쳤어요.	내 친구가 사회적 참사로 인해 죽거나 다쳤어요.	사회적 참사의 현장을 직접 봤어요.	사회적 참사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 참사 현장 근처에 살고 있어요.

나. 공적 역할 카드(5종)

나는 정치인 입니다.	나는 의료인 입니다.	나는 언론인 입니다.	나는 소방 공무원 입니다.	나는 경찰 공무원 입니다.
정책의 형성·결정·집행에 영향력을 행하는 역할을 해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해요.	기사를 쓰고 배포하거나 대중매체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해요.	모든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공감과 연대의 관점에서 되새기는 10·29 참사」 (2022) 수업 예시 자료 중

2.

경험 나누기와 자기소개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과서에는 자신 혹은 주변 인물(가족, 친구 등)을 소개하는 활동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교과서의 첫 단원이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자기소개나 지인 소개 활동을 활용하곤 합니다. 물론 교사가 학습자의 개별 특성에 알맞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끼리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혹은 주변 인물을 소개하는 학습 활동은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끼리의 관계를 지원하는 활동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사적 정보가 노출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선 '나의 상처를 극복한 경험'을 제재(題材)로 문학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살펴봅시다. 이 경우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더듬어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학습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학 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은 어떨까요? 자기 가족이나 가정환경을 학급 구성원 앞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학생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또 소비와 관련된 단원에서 '나의 소비 생활'을 모둠원과 공유하고 성찰하는 활동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계층이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심한 배려 없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소재로 삼아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은 누군가가 수업에서 소외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학습 활동은 모든 학생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과 사적 정보의 노출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안 이렇게 해봐요!

- 학습 활동을 구성하기 전,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요.
- 학생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활동을 지양해요. 교육적 필요에 의해 해당 주제를 활용해야 한다면 다양한 소재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 수업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 '내가 친구/동료와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것들'과 같이 민감한 사적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자기소개는 좋습니다.

3.

‘소방관 아저씨’, ‘식당 아줌마’ 라는 표현, 괜찮을까요?

교과서에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구성원이 계속 같은 모습으로만 교과서에 묘사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교과서에 등장하는 소방관은 항상 남성으로, 식당 직원은 항상 여성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관 아저씨’, ‘식당 아줌마’와 같이 불필요한 지칭어를 사용한다면 특정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스포츠와 관련된 삽화가 전부 남성 캐릭터로만 표현된다면, 남성은 활동적이고, 여성은 움직임이 적다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여학생은 치마 교복을 입고, 모든 남학생은 바지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만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청소년의 복장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학생다움’의 경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복을 선택하여 입거나, 두발 및 교복 자율화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교과서의 서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빈곤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때 특정 국가나 민족을 연상시키도록 그려내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의 전반적인 조건이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술은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없이 노동조합의 파업과 집회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내용만 실려 있다면 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 선정에 있어 인권 친화적인 고려가 없다면, 교과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안 이렇게 해봐요!

1. 성별에 따라 특정 성향을 갖거나, 특정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해요.

- 성별을 지칭하는 말이 필요 없는 경우 중립적 언어를 사용해요.

예 옆집 아주머니께 김치 갖다 드리고 올래? → 옆집에 김치 갖다 드리고 올래?

-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에 관한 고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요.

예 양육과 가족 돌봄이 여성의 역할로 치우치지 않게 해요.

- 경제 활동에서 생산과 소비의 역할을 특정 성별의 역할로만 그리지 않아요.

예 퇴근하는 인물은 남성, 쇼핑하는 인물은 여성으로만 그리지 않아요.

2. 가족을 다룰 때는 정형화된 모습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그려야 해요.

- '엄마-아빠-아들-딸'의 4인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보아요.

-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비혼 동거 가구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시해요.

3. 등장인물의 외모와 연령을 다양하게 그려요.

- 다양한 키와 몸무게를 가진 인물, 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인물, 왼손잡이, 다양한 연령층의 인물을 보여줘요.

- 삽화나 내용 서술에서 성별에 따른 외모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묘사해요.

예 다양한 성별의 인물이 다양한 의복을 입고 등장해요.

4.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을 쓰지 않아요.

- 특정 직업을 특정 성별의 역할로만 그리지 않아요.

- 특정 직업을 특정 국가나 민족의 역할로만 그리지 않아요.

- 특정 직업을 특정 연령층의 역할로만 그리지 않아요.

5. 특정 장소 및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해요.

6. 국가, 기업, 문화의 상징으로 다양한 인물을 소개해주세요.

7.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굳은 표정이나 신경질적으로 표현하여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8. 학습자료나 문학 작품 선정 시 작가, 등장인물의 다양성을 확보해주세요.

9.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과 사회적 소수자를 교과별로 고르게 배치해야 하며, 이들을 주변 인물로만 다루지 않고 학습 활동의 중심인물이나 주인공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어요.

4.

‘양성평등’, 법률용어에는 인권 문제가 없을까요?

교과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및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를 서술합니다. 아무리 집필자가 ‘성평등’이라고 쓰고 싶어도 법률 혹은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양성평등’이기에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혼인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혼인 역시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교과서의 특성상, 이러한 제한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나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항상 인권 친화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성평등은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고정불변의 성별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로 인구 문제를 다루는 단원에서 등장하는 ‘저출산’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출산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으며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인구 문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여자들이 의무적으로 자식을 낳게 하면 돼요’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권의 가치를 담은 용어와 표현의 사용은 조금 더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저출산 대신 저출생은 어떨까요? ‘엄마’가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뜻을 내포한 유모차 대신 유아차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취기준이나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각주 혹은 용어 해설을 달아서 인권 친화적인 대안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날개단 부분이나 지도서 등을 활용하여 용어에 내포된 차별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추가 활동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안 이렇게 해봐요!

- 용어 해설칸을 사용해서 인권 친화적인 대안 표현을 제시해요.

기존의 용어	대안어	이유
여성적·남성적 어조/화자	부드러운·강인한 어조/화자	기존 용어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표현과 성별을 결부시키지 않아야 함
학부모	양육자	기존 용어는 학생의 부모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형태 를 포함하지 못함
병어리장갑	엄지장갑	기존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임
미혼	비혼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태 그 자체를 중립적으로 표현할 필요 가 있음

- 해당 용어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생들과 함께 좀 더 인권 친화적인 표현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추가해요.

‘저출산’ 표현 꼭 써야 한다면... 날개달기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의 이유로 아이를 적게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령화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출생률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느낌이 드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



5.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라는 표현에도 인권 문제가 있을까요?

교과서에는 종종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제재글 속의 등장인물 혹은 삽화 속 인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존재를 포함하여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교과서 속에서 난민이나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는 종종 ‘도움의 대상’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속의 ‘시각장애인 돕기 마라톤 대회’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물’ 같은 표현은 장애인을 동등한 삶의 주체가 아닌 도움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모금과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삽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노인 이미지는 주로 젊은 사람의 부축과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휠체어에 탄 장애인 뒤에서 비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베풀고 다른 한쪽은 수혜자에 머무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장애인이나 난민, 여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 혹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을 거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교과서는 시혜적인 시선을 담은 표현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극복한 ○○○’의 경우, 장애에 대하여 사람의 특성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표현의 경우, 존재 자체의 가치가 아닌 필요성 여부에 따라 사람을 재단한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성별이나 장애 유무,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으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도움을 베풀어주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며, 스스로 결정하고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주체입니다.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이주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소수나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와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주체로 등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배려하여 만들어진 저상버스'라는 표현보다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저상버스'라는 표현이 더 인권 친화적입니다. 더 나아가 저상버스가 모두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점에서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저상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더욱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합니다. 학생들이 역시 이렇게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묘사된 교과서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이렇게 해봐요!

-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요.
-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서술해요.
- 인물을 소개할 때 활용 가치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만들기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려는 운동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한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게는 몇 칸의 계단도 이동하는 데 큰 장벽이 된다. 계단 대신 경사로가 있다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경사로의 기울기를 $\frac{1}{18}$ 이하로 정하고 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간은 '(보행 진입 시간) + (횡단보도 1m 당 1초)'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보행 진입 시간) + (횡단보도 0.8m 당 1초)'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된다.



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2011.
- <파이낸셜뉴스>, 2017. 5. 28.

▲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능동적인 주체로 묘사하고,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위한 시간 계산법 등을 서술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6.

이것저것 다 고려하기 힘들니까 그냥 빼고 싶다고요?

교과서는 수업과 학습 활동의 재료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각 교과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지식과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삽화나 문장 표현, 제시된 활동 방식이나 소재에 따라 학생들은 교과 내용과 별개로 다른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빠졌는지 또한 학생들의 실제 배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교과서에 피부색이나 머리색이 다른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면, 장애 등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진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면, 난민이나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학습 활동의 소재에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또 교과서 삽화 등에서 인물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로 표현된 캐릭터만 사용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와 그를 둘러싼 인권 이슈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물의 생김새, 소수자 집단에 대한 묘사, 피부색, 가족 형태, 직업 등의 영역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판단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탓에 일부 교과서에서는 장애인이나 이주 배경 가정 등을 다루는 제재나 활동, 삽화 등을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 대신 상대적으로 덜 예민하게 느껴지는 소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삽화나 소재, 활동을 생략한 교과서는 '무인권'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실재하는 소수자를 교과서에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비가시화'의 위험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주 접하고 만나는 존재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집필할 경우, 해당 집단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비가시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외와 배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낯설더라도 사회에 실재하는 소수자와 인권 현안을 교과서에 담아내야 하는 까닭입니다.

덧붙여, 현재 실생활 속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서술하거나,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여성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일상에서는 여전히 가족 형태로 인해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활동은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인권’적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재하고 있는 수많은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지거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유리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으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인권을 배우는 자체가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인권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공식적으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내용

제안 이렇게 해봐요!

- 사진이나 삽화 이미지를 넣을 때 일상의 장면과 인물의 다양성이 골고루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세요.

예 공원이나 놀이터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장면에서 장애, 성별, 국적, 가족 형태, 직업 등의 다양성 표현하기

예 휠체어 이용자만이 아닌 다양한 장애 유형, 나이, 체형 등을 고려해 주세요.

- 학습 활동의 소재로 인권 현안을 사용해 보세요.

예 일차함수의 기울기 관련 단원에서 경사로의 각도 계산하기, 논설문 관련 단원에서 인권 현안에 대한 주장글 제시하기 등

- 현실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시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교육자료를 선택할 때 미리 점검하면 좋을 내용

- ☐ 삽화나 이미지에서 피부색, 성별, 가족 형태, 나이, 체형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 있나요?
- ☐ 인권 헌안을 내용이나 소재로 다루고 있나요?
- ☐ 인물을 서술하거나 묘사할 때 사회적 성공 여부가 아닌 존재 자체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나요?
- ☐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넘어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주고 있나요?
- ☐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보살피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나요?
- ☐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담긴 표현이 쓰이지 않았나요?
- ☐ 성별이나 지역, 민족, 직업, 나이 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담긴 호칭이나 표현, 이미지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인권 친화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 ☐ 여성이나 어린이·청소년을 설명할 때, ~의 아내나 엄마, ~의 자녀 등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 ☐ 국어나 미술 등 작품을 제시할 때 글쓴이나 작가의 성별이나 출신 국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나요?
- ☐ 불필요하게 사적인 정보나 경험을 드러내는 활동은 없나요? 부득이하게 관련 활동을 해야 한다면, 사적 정보나 경험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있나요?

인권 친화적 교과서, 더 알고 싶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인권적 관점과 기준에서 초·중·고 교과서의 서술내용과 방법, 예화,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을 분석한 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과서 내 인권 침해적 요소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 (2009)
-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 (2010)
-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 (2011)
-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 (2012)
-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 (201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초·중등 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를 통해 모든 교과 수업에 인권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 내용이나 활동 구성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교과별 교과서 개발 과정이나 교수·학습 자료 선택 및 제작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과에서의 인권 관점 반영을 위한 유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edu.humanrights.go.kr>

경로 안내·자료실 > 교재·교육자료실



1. 모든 교과목 공통

모든 교과서의 서술 내용, 서술 방식, 소재를 결정함에 있어

- ① 모든 개인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 ②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규정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조장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비율로 배치하여 등장인물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관례화된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권교육 교과목

인권교육 교과서의 주제, 소재, 서술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인권의 다양한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반영한다.
- ②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생활 관련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활용한다
- ③ 인권관련 주요 선언 및 국제협약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국제적인 인권 증진 노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세계적인 인권역사 및 인권헌안을 학습하고 인권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⑤ 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하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